

뉴질랜드를 떠날 때, 공항에서 까꿍이의 울먹이는 모습이 나를 서글프게 한다. 차에서 내려 나를 쳐다보는 기선이의 별종. 종혈 된 듯한 것 같이 보였다.

이 별의 슬픔도 느끼게 된 것을 보니 까꿍이도 많이 큰 것 같다. 지금도 눈에 선한, 차안에 앉아 불려도 대답 않고 울먹이던 까꿍이, 손을 흔들며...

언젠가 저도 자라면 태연스럽게 나와 기선이 뿔을 떠날 텐데... 그래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뉴질랜드를 떠날지 이틀이 지난 지금도, 까꿍이의 모습을 떠올리면 슬퍼진다. 더욱 더 강해지고 당당하게 자라기를 바란 뿐이다.

내가 못나서 밑찍부터 헤머져 살아야 하는 아픔을 주는 것 같다. 밭으로 뵈어나 살지...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 해야 하는가 보다. 나태하고 느슨한 자세를 가다듬도록...